

# 지난 항생제 파동을 보면서

울산광역시 지회장 이성배

2006년 9월28일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에서 국내에서 시판되는 벌꿀에서 항생제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을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며칠 앞두고 언론에 보도하여 우리 40,000여 양봉농가는 당황함을 감출 수 없었다. 또 판매업체에서는 추석 대목을 보기 위하여 준비해 둔 꿀이 판매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쯤되는 상황이 벌어져 부도 위기를 맞이하는 수난을 겪었다.

검출된 항생제 중에서 국내 제약회사에서 생산을 하지도 않는 클로람페니콜(streptomycin)이 검출되었는데, 양봉협회 자료를 보면 클로람페니콜은 미국에서 생산되어 중국이 제1수입국이고 한국이 제2수입국이라는데 클로람페니콜은 그램(gram)양성, 음성 세균 및 특정한 종의 리켓차(Rickettia) 등 항균 범위가 상당히 넓으며, 가축은 우리가 사육하는 개의장염(파바)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사람은 이질이나 장티푸스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 중 극소수가 순환기내 적혈구와 백혈구의 감소를 유발하는 골수장애 및 빈혈증이나 백혈병으로 진전하는 등 골수 조혈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져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클로람페니콜은 식품위생법상 소, 돼지, 닭 등에 불검출로 잔류허용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즉 식품에 사용을 할 수 없는 항생제가 일차 식품인 꿀에서 검출되다 보니, 소시모에서 보도한 자료에 잘잘못을 논하기 전 양봉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죄책감을 느끼며 또한 식약청에서는 뒤늦게나마 벌꿀에도 항생제 허용 기준치를 입법 예고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양봉업계에서는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과 같이 300ppb나 또는 유럽연합과 같이 불검출이나, 아니면 같은 유럽권이라도 스위스만은 스트렙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설폰아마이트 등의 항생물질에 대해 각각 20ppb( $\mu\text{g}/\text{kg}$ ), 20ppb, 50ppb 검출 기준치를 두고 있는데 스위스와 같이 우리도 20~50ppb를 하느냐, 아니면 300ppb를 하느냐를 두고 그동안 우리 업계는 많은 논란과 토론이 오가며 업계 전체가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식약청에서 입법 예고하는 항생제는 클로람페니콜이 아니고 옥시테트라사이클린(oxytetracycline)인데,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물질은 스트렙토마이세스(streptomyces)에 의해 생산되며 그램(gram) 양성균, 음성균에 모두 작용하는 뛰어난 약효와 경제적인 이점 때문에 여러 동물의 세균 감염으로 기인하는 질병에 널리 이용되었다.

꿀을 생산하는 꿀벌도 다른 동물과 같이 세균에 의해 여러 질병에 감염이 되는데 특히 부저병은 가장 흔하면서 치명적인 질병이다.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는 테트라사이클린계 약제를 설탕에 섞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물에 희석을 하여 급수를 하면 잔류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들 하는데 과연 근거 있는 이야기 인지 알고 싶으며, 한·미 FTA를 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업계는 지난 논쟁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이라도 전업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푹푹 뭉친 모습을 정부나 소비자단체에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난날과 같이 우리업계가 양분되어 300ppb나 아니면 20~50ppb나 또는 불검출이나를 두고 각각 자기 목소리를 낸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우리 대다수의 생산 양봉농가라는 것을 지도층에 계시는 높은 분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자유무역협정 즉 F.T.A (Free Trade Agreement)는 갈수록 우리 양봉산업을 압박하고 있으며, 세계 FTA 현황을 보면 70년대 이전 5개국, 70년대 12개국, 80년대 10개국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국, 2000년대 106개 국가가 체결되어 현재 세계적으로 179개국이 체결 되었다.

우리나라 경제의 약 7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의 현실로는 FTA가 필수 사항이다. 하지만 FTA 협상 대상국 중에는 지금 당장 벌꿀 개방을 부르짖는 미국, 캐나다 등 태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중국이 양봉 강국으로 봉산물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양봉에 크나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들 나라들은 풍부한 밀원과 저임금 체계와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물량공세로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FTA는 우리 한국 양봉의 크나큰 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FTA가 우리 양봉업의 적이라 하여 언제까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협상 반대만 외칠 수 없지 않는가?

FTA협상이 아무리 잘되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FTA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지난 날과 같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허한 허공에 대고 내 목소리만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업계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손에 손잡고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우리 양봉업계의 나아갈 길을 의논하여야 할 것이다

**양봉협회에 바라는 마음**

양봉을 하는 한사람으로 지난 병술년 한해는 뒤돌아보기 싫을 정도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우리의 주 소득원인 벌꿀이 사상 최악의 흉작인가 하면 소비, 화분 사건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항생제 사건이 발생하여 업계 전체가 한 목소리가 아닌 양분된 목소리가 나와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릴 수 없는 한해였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 벌꿀이 한미 FTA에서 불행 중 다행으로 민감 품목에 들어간 데 대하여 양봉인의 한사람으로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여러분에게 재차 그동안 노고에 박수와 함께 고운 마음을 전합니다.

한미 FTA에서 벌꿀이 민감 품목으로 책정되어서 그 유예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전 업계가 양봉협회를 중심으로 지난 과거는 잊어버리고 한마음이 되어 최소 10년 이상 유예기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노력 여하에 따라 5년에서 10년의 유예 기간 안에 우리 후배 양봉인에게 보란 뜻이 물려 줄 수 있는 양봉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시대적 사명과 책임이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선 대책 후 협상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양봉협회는 우리 양봉산업을 화분 매개 등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 경제 산업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를 농림부 및 시·도 관계 공무원에게 홍보를 하여야 하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부터 잔류 문제를 원칙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질 좋은 봉산물이 생산하여 유통에서도 소비자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양봉산업의 대 혁신이 이루어져야 만이 생산능가가 살길이며, 그리고 유예 기간 동안 전 국토 밀원화 사업을 1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아까시아 나무는 병들고 기후는 온난화로 가면서 벌꿀 생산은 갈수록 저조한데 언제까지 아까시아에 의존만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 국토 밀원화 사업이 어렵겠지만 협회에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백년대계의 사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